

「세계의 식량전망, 굶주림의 위기」

2년째 계속되는 세계적인 이상 기후 때문에 곡류나 대두의 국제가격이 몹시 올랐는가 하면 지난 9월부터는 미국을 필두로한 주요농산물 수출국들이 끝내 곡류의 수출규제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따문은 두부나 된장 육류 유제품의 단순한 가격인상만을 빚어내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식량에 불안마저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이번 세계적인 식량부족의 특징은 단백질질을 둘러싼 정세가 유달리 심각하다는 점이다.

발단은 페루 해역의 멸치용어 남태평양의 고기압이 약해져 남미해안을 흐르는 한류에 이번이 생겨 멸치가 뼈죽음을 했던 것이다. 어분으로 닭 돼지의 주된 사료가 되는 멸치불황은 어분의 뿔박을 쓰래했고 대체품인 대두박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면서 콩깍묵의 부족과 대두가격의 인상을 불러 일으켰던 것이다.

한편 남태평양의 고기압이 약해진 것과는 거꾸로 인도양의 고기압이 강해졌다. 작년부터 금년까지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소련 등이 지독한 한발을 보였다. 소련은 흉작에 따른 곡류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작년에 미국을 중심으로 3천만톤에 가까운 곡물을 들여갔다. 소련의 이같은 대량매입은 세계의 곡물 수요를 크게 변화시켰다. 소맥 옥수수등의 국제가격이 급등했다. 일본의 경우 배합사료 가격이 지난 1월부터 두달사이에 20%가 올랐다. 우리 나라도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10.9%, 26.9%, 13.3%로 총 51.1%가 인상되었으며 9월말에는 또다시 사료가격이 인상될 전망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사료가격인상은 육류와 유제품에도 영향을 미쳐 지난 1월에 7엔 50전(kg당) 하던 생산자 우유값이 최근에는 11엔 50전으로 올랐다. 닭고기값도 올랐는데 오는 9월께는 사료값의 대폭 인상기미와 함께 닭고기 값도 한층 더 오를것 같다는 것이다. 그런데 소

련의 경우 작년에 흉작이라 했지만 사실 60년대 후반의 평균 수확량을 상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도 곡물을 대량 매입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소련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축산물의 수요가 급증한데 따른 것이다. 사람들의 기호, 식생활 관습의 변화때문인데 「칼로리, 섭취를 위해 곡물을 직접 먹는 것보다 곡물→가축→인간의 경로를 택한 탓인 것이다.

이에 따른 곡물의 소비량은 단순한 곡물→인간의 경로보다 7배나 된다.

육식을 주로하는 미국인의 경우 식용과 사료용을 포함하여 한사람이 년간 800kg의 곡물을 소비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일본인은 260kg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같은 축산물의 수요 증가는 특히 최근들어 세계적인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따른 곡물이나 대두의 수요증대는 당연한 사실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기상학자들은 지구가 한냉화되어 가면서 기상의 변동이 불안정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렇지만 올해는 지금까지 미국이나 소련이 흉작일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세계적인 식량 부족도 잠시나마 숨돌릴틈이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긴 안목으로 볼때 결코 장래의 식량사정에 대해서는 낙관을 불허하고 있다.

최근 10여년동안 식생활에 큰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전해진 일본의 경우 육류, 유제품, 계란, 유지류의 소비는 눈에 두드러질 정도로 증가했으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 가장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 사실 일본은 대두의 96%, 소맥의 92%, 농후 사료는 67% 정도를 수입하는 만큼 당연한 걱정이나 설상가상으로 농촌의 붕괴가 급속하여 그 정도가 심한 편이다. 우리나라도 이웃 일본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식량정책의 근본적인 개혁으로 장래의 식량위기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